

# 강진군, 백종원과 함께 '음식타운' 조성 박차

### 더본코리아 관계자 현지 조사 소상공인 의견 청취 설계 논의 "야외 취식공간 조성해야" 조언 음시장 등 리모델링·메뉴 개발

강진군이 지난 6월 110억원 규모의 '2024년 민관협력 지역상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백종원과 함께 강진 음식타운 조성 구제화에 나섰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지역경제활성화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더본코리아가 본격적인 사

업에 돌입하기 위해 지난 17일 만남을 가졌다.

이날 강진 음식타운 활성화 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더본코리아 지역개발사업팀 관계자들은 강진읍시장과 오감동, 주변상가 등을 꼼꼼히 둘러봤다.

백종원 대표의 강진 발전 청사진을 위한 사전 현장 파악과 주변 소상공인분들의 의견 청취, 설계 방향 논의 등 그동안 정제됐던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현장 방문 후 강진읍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수산동의 노후화된 외벽 해체, 주차

장 부지에 야외 취식 공간 조성, 수산동 먹거리 구입 후 야외에서 취식, 수산동부터 주차장까지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취식 공간 이용 등을 구체화했다.

오감동 먹거리장터와 야외무대 활성화를 위해 오감동 내 먹거리장터 리모델링, 리모델링 후 창업자 모집,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 강진 특화 메뉴 개발 및 제공, 오감동 먹거리장터 테라스 조성 등 야외광장 정비로 음식과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외식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향후 백종원 대표의 강진군 방문 때 강

진원 강진군수 및 시장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읍시장과 오감동 먹거리타운 환경정비에 본격 나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더본코리아 관계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차질없이 준비해 강진읍 상권 전체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이 증대되고, 관광객 방문 등 생활인구 증대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신안군, 조리종사자 역량 교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주관

신안군은 신안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최유미) 주관으로 관내 등록 급식소 조리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15일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합 교육은 조리 종사자들의 위생 의식을 높이고 영양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위생 이론 교육으로 올바른 조리 방법과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퀴즈로 알아봐요. 올바른 사용법' 등 퀴즈를 통해 급식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위생 지식을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했다.

영양 실습 교육에서는 신안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빵과 카야잼 크루아상을 직접 만들고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욱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관내 등록 급식소 조리사 집합 교육이 위생과 영양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신안군, 버스공영제 경제적 파급효과 '연 160억원'

신안군은 버스공영제 사업이 연간 1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로 버스공영제 시행 16년째를 맞은 신안군이 최근 실시한 '버스 공영제사업 경제적 분석 검토 용역'에서 나타났다.

용역에서 제시된 경제적 효과는 그 동안의 이용객 수 증가와 군민 이동량 증가, 이동 편의성 향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또 버스공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제적 유발효과는 총 2333억원에 달했다.

이는 '군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및 '언론홍보 효과' 등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성편익은 효과의 과다 상승을 막기 위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경제적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안군의 버스공영제는 다른 지자체의 민영제와 준공영제에 비해서도 훨씬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23년 기준 민영제와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신안군은 버스 대당 7200만원이며 민영제를 실시하는 목포시의 경우 대당 약 8600만원이다.

또 준공영제를 하는 광주광역시 대당 1억37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당 1억5700만원으로 신안군의 버스공영제 사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버스공영제 사업이 연간 16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 및 정당성이 확보됐다"며 "높은 효율성도 확인된 만큼 우리군 우수 교통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례 전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완도군, 청년 공동체 모집... 활동비 800만원 지원

완도군은 '2024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팀을 8월29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공동체를 발굴·육성해 청년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반 마련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모집 규모는 총 8개 팀이다.

지원 자격은 19세에서 49세이면서 60% 이상이 도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 공동체(팀, 법인·단체)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희망하면 참여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지역 연계 행사,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제작, 캠페인 등이다.

사업에 참여할 청년 공동체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팀은 과업 수행비 600만원과 청년 공동체 간 네트워크 지원 및 홍보비 200만원까지 총 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공동체(팀, 법인·단체)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2024-154호)를 확인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 진도군,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 의료취약 지역 대상

진도군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는 보건소 방문 보건·강진의료원 전담팀 인력 등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순회진료하는 사업이다.

진료는 △혈압·혈당 측정 기초검사 △체지방·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함께 진행한다.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국가암검진 홍보 등 다양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는 관내 경로당 8개소를 월 1~2회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전남건강버스를 활용해 전남도·보건소가 함께 실시하며 의료취약지를 찾아가 다양한 진료 활동을 펼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무안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어린이들이 놀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18일부터 남악·오룡 신도시에 거주하는 유아 15명을 대상으로 'FUN! FUN! 유아운동 교실'을 운영 중이다.

## 무안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아 운동 교실

무안군이 지난 18일부터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남악·오룡 신도시에 거주하는 유아 15명을 대상으로 'FUN! FUN! 유아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FUN! FUN! 유아운동 교실은 신체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유아기 아이들에게 체력증진과 신체발달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유아체육 전문 지도자가 발리보, 코퍼

밴드, 에어사다리, 파라수트, 플레이스쿠프 등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주제로 유아 체조, 교구 활용 운동, 마무리 운동 순서로 진행된다.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해피마미 출산준비 교실, 오감발달 베이비 마사지 교실, 아이튼튼! 엄마든든! 이유식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문의는 061-450-5006으로 하면 된다. 무안=김행민 기자

## 목포시, 조위 상승 해수 침수방지 철저 당부

목포시가 대조기인 23일부터 25일(오전 2~6시)사이 바닷물 수위가 5.0m 이상(조석표상 7/23 최고 5.06m)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

다.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 해남군, 31일까지 접수

해남군은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8월5일부터 8월31일 한 달간 관내 의료기관과 협업체 검사를 진행한다. 보건소에서 발급한 쿠폰을 가지고 협약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인 만큼,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531-3762)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만성질환은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inilbo (전일보). Includes Kakao Talk and E-Mail details.